

“저축銀 사태는 금감원 부패서 시작” “정상회담 추진 내년 선거용 아닌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저축銀·남북문제 공방 치열

국회의 2일 정치분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전남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사실과 대화내용 등을 폭로한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저축은행 사태=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고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부패와 부패에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감사원의 부패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부동산 PF를 감사했다니 오만 군데서 청탁과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다”면서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가 어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압력이란 표현은 보통 동급이나 상급기관에서 요구할 때 쓰는 단어”라며 “감사원장과 동급이면 국회 아니면 청와대라는 추정이 가능할데 압력을 넣은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총리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 정권 아래서 진행된 일인데도 입만 벌리면 전 정권 탓을 하느냐”면서 “전 정권

이 고, 현 정권이 필요하면 다 조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 문제=여야 의원들은 외교관계를 무시한 북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돈 봉투를 싸들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물은 뒤 “총리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국민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불러 “정상회담을 모색한 것은 잘한 일인데 왜 국민한테는 대화를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에 예절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과 8월, 내년 3월 등 세 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도 원칙도 없이 방관하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살아보려는 비겁한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아직도 이 땅에서 호남

의 가슴 아픈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 사회냐”며 “총리는 ‘호남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남 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호남 홀대론의 여론

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총리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여론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F1대회를 포함해서 호남에 대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총리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여론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F1대회를 포함해서 호남에 대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오만 군데’는 감사저항 세력 말한 것

김총리 “권력기관·정치권 압력 아니다” 해명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감사원장 재직시 저축은행 감사 과정에서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저축은행 감사에 저항하는 일정 그룹 및 세력이 감사원 직원 등에 행하는 일체의 어필 또는 청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오만 군데라는 표현은 호남에서 하는 말이고 감사원장에게 누가 압력을 행사하겠느냐”며 “여야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권력기관이나 여야 의원 등 정치권의 압력

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감사원장 재직 시절 서민금융기관 전반을 감사할 때 굉장한 감사 저항이 있었다”면서 “민간 저축은행을 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느냐와 엄정하게 감사하면 뱅크런(예금인출사건)으로 이어져 경제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테니 감사원은 감사를 자제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금융권 낙하산 정부 측근인사 53명”

민주당은 2일 “인수위·대선캠프, 소망교회 등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인사 53명(중복인원 포함시 58명)이 현 정부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이나 사외이사도 금융계에 낙하산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 결과를 인용한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고려대 출신 9명, 이광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인수위·대선캠프 출신 8명, 소망교회 출신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 등 모두 24명(1명 중복)이 MB정부 낙하산 인사로 금융기관의 회장 등 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14명, 고려대와 소망교회 출신 5명, 정부 출신 3명 등 모두 34명(4명 중복)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명됐다”며 “지금이라도 경제를 망

치는 이런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태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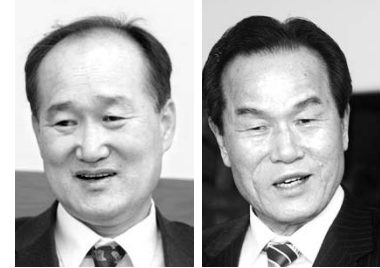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지역·학벌 균형을 고려하되 중산·서민층과 진보적 시민단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조 변호사를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시·도당 위원장 직대

광주 안재홍·전남 박재순

전북은 김태구씨 임명



안재홍위원장 박재순위원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의화 의원)는 2일 전체회의에서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안재홍 전 국회의원, 전남도당 직무대행에 박재순 전 최고위원,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는 김태구 남원·순창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으로 있던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가 1년여 만에 채워지게 됐다.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은 광주시당위원장 및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자 직권으로 경선을 중단시킨 후 직접 임명할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는 오는 7월4일 전당대회까지다.

전당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이다.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한나라당이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듬는 더 따뜻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흐트러진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남도당이 지역민들에게 다가서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부산저축銀 캄보디아 투자 김진표 연루”

민주 “삼화銀위기때 신삼길-곽승준-이용렬 회동”

저축銀 사태 정치권 일파만파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작된 2일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실명을 공개하며 거침없는 폭로전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캄보디아 PF대출사업 막후에는 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깊이 개입했다는 제보를 현지 경제인들로부터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신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난 2007년 3차례의 캄보디아 방문기록을 근거로 “2007년 7월 2차방문 1개

월 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4명이 캄보디아를 먼저 방문했고 김 원내대표의 방문 직후인 8월 부산저축은행이 수도 프놈펜에 ‘캄코은행’ 개소식을 열었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체류했던 2007년 12월에는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대표도 캄보디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6년 11월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을 때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대표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었다”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만큼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정권 실세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 위기 당시 신삼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승준 미래기독교위원장, 이용렬 코오롱 회장이 청담동 125번지의 퓨전 한식당에서 회동했다”고 폭로한 뒤 “이후 삼화저축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에 인수돼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회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했다는 말도 있다”며 “영포목우회 회장이었던 박명재 전 행사부 장관이 2010년 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부산저축은행측의 부탁을 받고 영포라인의 인맥을 통해 사태를 무마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브로커 박태규씨에 대해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은 언론인 시절부터 박씨를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며 “박씨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도 언론인 시절부터 잘 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된 폭로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면에서 나서서 야당과 맞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데다 오는 8월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 정권 책임론에 대한 포문을 일제히 열 때 세워서 굳이 청와대가 나서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 대표, 이희호 여사 예방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앞두고 새 지도부와 함께 서울 미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며 대북정책에 관한 이 여사의 조언을 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앞두고 새 지도부와 함께 서울 미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며 대북정책에 관한 이 여사의 조언을 구했다.

정가 라운지

장병완 등 15명 예결위원 선정

민주당은 2일 재선의 강기정(광주 북갑)·주승용(여수) 의원, 초선의 김영록(해남·진도·완도)·장병완(광주 남) 의원 등 15명의 의원을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정했다.

특히 국회 내 최고의 예산전문가로 꼽히는 장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결위원이 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국회지원 예산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최고위원 사무실 이전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동구 학동 47-3번지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내년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조직 강화 활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후원회와 민주당 동구 지역위원회가 입주한 새 사무소는 남광주 지하철역이 5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동구 지역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박 최고위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갖고 2011년 총선과 대선 필승을 다짐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가능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H.P.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망서 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원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된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이: 8, 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